

기혼여성의 부적응적 성격과 부부간의 갈등행동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Married Women's Maladaptive-Personality Conflict-Behavior on Marital Adjustment

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팀 장 송 두 리*

사무국장 문 정 숙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 수 김 영 희**

Cheong-ju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Team Leader : Song, Du-Ri

The Director : Mun, Jeong-Suk

Dept. of Child welfare, The Chung-buk Univ. of Korea

Professor : Kim, Yeong-H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ffects of maladaptive personality (borderline personality, narcissistic personality, and dependent personality) and conflict behavior on marital adjustment(dyadic satisfaction, dyadic consensus, dyadic cohesion, and affectional expression) among married women. Subjects in this study were 725 married women who lived in Cheong-buk, in Gyeonggi province, Korea. Data were analyzed by the methods of frequency, percentage, Cronbach's α , and factor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using SPSS-WIN version 12.0.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less borderline personality was perceived, the more narcissistic personality was perceived, In addition, a greater perceived amount of destructive conflict behavior of wives was linked to highdyadic satisfaction in the wives'. Wives' destructive conflict-behavior was the most important parameter to predict dyadic satisfaction. 2) The less borderline personality was perceived, the less dependent personality was perceived, while the more narcissistic personality was perceived, the more destructive conflict behavior of husbands was perceived, with the, wives' incidence of dyadic consensus appearing high. Husbands' destructive conflict behavior was the most important parameter to predict a dyadic consensus. 3) The less borderline personality was perceived, the more narcissistic personality was perceived, In addition, more destructive conflict behavior of the husbands was linked to highdyadic cohesion in the wives'. Husbands' destructive conflict behavior was the most important to predict dyadic cohesion relatively. 4) The more destructive conflict behavior of wives was perceived, the higher the wives' affectional expression appeared. The wives' destructive conflict behavior was the most important parameter to predict affectional expression.

▲주요어(Key Words) : 부적응적 성격(maladaptive personality), 부부갈등행동(conflict behavior), 부부만족도(dyadic satisfaction), 부부일치도(dyadic consensus), 부부결합도(dyadic cohesion)

* 주 저 자 : 송두리 (E-mail : clearduri@familynet.or.kr)

** 교신저자 : 김영희 (E-mail : enjoy@chungbuk.ac.kr)

I. 서론

부부관계는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로서 다음 세대를 양육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체계이며 동시에 가족기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부부관계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를 극복하려 하기보다는 부부관계를 쉽게 해체하려는 경향이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95년 6만 8천명이었던 이혼 건수가 2009년 12만 4천 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이혼율도 2008년보다 2009년에 6.4%의 증감률을 보여 부부적응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부부관계의 문제는 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는 물론 자녀의 신체, 정서, 인지, 사회 발달에 심각한 부적응을 초래하고, 나아가 가족 전체에까지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쳐 사회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 진입하면서 가족의 기능적 측면보다는 가족관계의 질이 강조됨에 따라 부부관계에서도 적응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Kim, 1999). 부부적응이란 좁게는 부부간의 차이점을 조화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넓게는 사회변화에 적응해가는 과정으로 정의된다(Wells, 1984). 이러한 부부적응의 개념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통합된 하나의 영역으로 인식되기보다 다양한 하위요인으로 세분화하여 정의 내려진다. 문헌고찰을 통해 부부적응의 하위개념을 살펴보면 행복감, 성적 적응, 신뢰감, 경제상황, 성격, 사회적 지지자원, 의사소통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Beach & O'Leary, 1993; Kim, 1991; Lee, 1998). 그러나 이러한 개념 정의는 부부적응을 구분하고 나열하는 차원에 그쳐 부부관계의 속성을 심도 있게 연구하는데 한계점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적응의 질적인 속성과 동적인 속성을 모두 고려한 Spanier(1976)의 다차원적 개념을 통해 부부적응을 부부만족도, 부부일치도, 부부결합도, 애정표현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부부적응에 관련된 개념과 관련 변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부부적응의 하위차원인 부부만족도는 개인이 결혼생활 전반에서 경험하는 즐거움, 만족, 행복 등과 같은 주관적 감정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결혼생활의 실제와 기대간의 차이에서 오는 주관적 만족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부부일치도는 재정관리, 인생관 및 가치관, 여가생활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 일치정도를 파악하는 개념으로 부부일치도를 통해 부부가 서로 간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서로를 존중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된다. 또한 부부결합도는 부부가 서로 간분리와 연결의 패턴을 형성하려는 욕구로 부부 공동의 활동 참여를 나타내고 부부간의 상호작용을 결정짓는 일차적 기능을 한다. 마지막으로 애정표현은 부부간의 감정적 만족감

및 사랑을 느끼는 감정과 부부로서의 관계를 유지하며 결속을 강화하여 친밀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Spanier, 1976).

이러한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가족학자들은 학술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초기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인성특성이나 애착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는데, 점차 이혼율의 증가로 인해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패턴과 같은 관계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는 결혼 전에 이미 형성된 성격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학력이나 직업과 같은 일반적 배경요인보다 부부적응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부부간의 상호작용 요인의 기제가 되는 것으로 밝혀져 부부관계 적응에 개인의 성격이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었다(Caughlin et al., 2000; Robins et al., 2000).

성격은 개인이 다양한 상황 안에서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발휘되는 특징적인 행동, 사고, 감정을 포함한다(Youn et al., 2001). 그러나 빠른 사회변화에 따라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문화적 기대로부터 심하게 벗어난 행동을 보이게 되면서 부적응적 성격이 주목받게 되었다(APA, 1994). 이러한 부적응적 성격은 개인의 생활영역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인 부부관계나 부부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Bauserman et al., 1995; Coyne et al., 2002; Gutman et al., 2006; McGlashan et al., 2005; South et al., 2008).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94)은 개인의 부적응적 성격을 10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선행연구는 10가지 부적응적 성격 중 경계선적 성격, 의존적 성격, 자기애적 성격이 부부적응과 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해 주었다(Chag, 2009; Park, 2006; South et al., 2008). 또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경계선적 성격, 의존적 성격, 자기애적 성격의 유병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흔하게 나타날 뿐 아니라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보고하면서 기혼여성의 부적응적 성격과 부부적응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부적응적 성격 중 경계선적 성격은 높은 불안정성과 충동성, 신경증의 특징을 보인다(APA, 1994). 경계선적 성격의 정서적 불안정수준은 대인관계에 있어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기혼여성의 자기보고식 검사에서도 정서적 불안수준을 높게 지각하는 사람이 부부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Daley et al., 2000). 또한 Whisman and Schonbrun(2009)은 이혼한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충동성과 신경증이라고 밝히고 있어 경계선적 성격이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해 준다.

의존적 성격은 불안이 높고 타인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며 다른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특징을 보인다(Min &

Nam, 2000). South et al.(2008)은 의존적 성격의 여성은 남편이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남편에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 일치도를 낮게 지각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Gutman et al.(2006)은 의존적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인 수동적이고 복종적인 태도는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어 의존적 성격과 부부적응간의 관련성을 살펴 볼 필요성을 제기해 준다.

자기애적 성격은 타인에 대한 낮은 공감과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높은 자존감, 자유로운 감정노출의 특징을 보인다(Kwon & Han, 2000). 이러한 특징 중 감정에 대한 낮은 공감과 배우자에 대한 과도한 이상화, 또는 평가절하는 부부적응을 어렵게 하며 불안정한 부부관계를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Jang, 2009). 반면 Park and Kho(2005)의 연구에서는 자존감을 높게 지각하는 기혼 여성이 자아분화가 잘 되기 때문에 부부관계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상실하거나 잘못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부부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어 부적응적 성격이지만 어떠한 성격적 특성이 발현되는지에 따라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양성평등 사고의 확산은 아내와 남편의 평등한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가정 내에서 남편과 아내의 성역할 수행에 따르는 기대와 인식에 차이를 가져와 부부간에 갈등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양성평등 사고의 확산에 따라 기혼여성의 부부적응과 관련된 최근 연구들은 관계적 특성으로 갈등행동을 규정하고 있다(Kim, 2009). 갈등행동이란 개인이 갈등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처리하고 적응해 나가는 방식이며, 개인이 그 갈등 상황을 대응하거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양식을 말한다. 오랜 기간 각기 다른 가정에서 살아 왔던 부부가 신체적·정서적으로 공동생활을 영위해 가는 과정에 있어 어느 정도의 불화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갈등상황이라도 갈등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나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부부적응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갈등행동은 부부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Kim & Chung, 2007).

갈등행동과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정적 갈등행동을 적게 할수록 부부의 관계 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 Kho, 2005). Kim and Cho(2000)는 갈등 상황 시 이성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결혼안정성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Chung(2004)도 갈등을 회피하거나 부정적인 감정표출과 같은 행동을 많이 할 경우 결혼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갈등 상황에서 부정적 갈등행동을 많이 보이는 부부가 결혼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정적 갈등행동은 수동적

회피, 신체적 폭력(Yi & Park, 2006)과 외부도움 의지, 감정적 대처, 회피와 순응 및 체념, 기분 전환, 의견 강요(Kwon, 1996) 등으로 분류되지만 최근에는 이혼과 결혼 부적응을 예측하는데 있어 파괴적 갈등행동이 가장 유력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Gottman, 1998; Heavey et al., 1993). 파괴적 갈등행동은 언어적 공격성의 개념으로 타인에게 비난, 경멸, 방어, 회피하는 방식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파괴적 갈등행동은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를 결정짓는 단서를 제공하며, 7년 안에 부부의 이혼을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혀지면서 부부적응을 저해하는 강력한 요인이 입증되었다(Gottman, 1998).

남편과 아내의 파괴적 갈등행동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Heavey et al.(1993)은 부부가 갈등 상황일 때 남편이 파괴적 혹은 회피적 행동을 취하는 경우 문제 해결의 효율성이 낮고, 부부적응에 대해서도 불만족을 많이 지각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아내의 파괴적 갈등행동과 부부적응의 관련성에서도 부부적응에 있어 부적 상관을 보고하고 있으며 갈등상황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비난, 경멸, 방어, 회피의 파괴적 갈등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부부적응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파괴적 갈등행동이 부부관계 적응을 어렵게 한다는 추론을 뒷받침 해준다(Yi & Park, 2006). 또한 갈등상황에서 파괴적 갈등행동을 보일 때는 자신의 행동뿐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대배우자의 갈등행동을 어떻게 지각하는가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Marston et al., 1998).

따라서 본 연구는 기혼여성이 지각한 부적응적 성격(경계선적 성격, 의존적 성격, 자기애적 성격)과 기혼여성이 지각한 자신과 남편의 갈등행동이 부부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부부적응의 하위요인(부부만족도, 부부일치도, 부부결합도, 애정표현)에 따라 살펴봄으로써 결혼생활을 증진시키고 강화하는 방안을 탐색해보고, 부부 교육 및 상담현장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문제 1> 기혼여성의 부적응적 성격과 갈등행동이 부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기혼여성의 부적응적 성격과 갈등행동이 부부일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기혼여성의 부적응적 성격과 갈등행동이 부부결합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기혼여성의 부적응적 성격과 갈등행동이 애정표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C도와 K시 소재의 유아교육기관, 관공서, 평생교육원 등을 통해 자기기입식 질문지 조사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관공서와 평생교육원의 경우에는 한 사람의 책임자를 섭외하여 연구자는 책임자에게 조사대상의 범위와 주의사항 및 연구의 목적 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책임자가 설문지의 배포 및 수거작업을 맡아 진행하였다. 유아교육기관의 경우는 연구자가 유아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응답 방법을 설명한 후에 유아를 통해 각 가정으로 질문지를 보내서 어머니가 응답하도록 하고, 응답한 질문지는 다시 유아를 통해 유아교육기관에 가져오게 하여 교사가 이를 취합한 후에 연구자가 수거하였다. 총 85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780부가 회수되었으나(회수율: 92%), 질문지 내용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와 분석에 부적합한 자료 55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725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자료의 분석은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35세 이하가 25.8%, 36~40세가 33.9%, 41~45세가 21.1%, 46세 이상이 19.2%이었고, 학력은 고졸 이하가 44.4%, 대졸 이상이 49.7%, 대학원 재학 이상이 5.9%이었으며, 월평균 수입은 200만원 미만인 11.0%, 200~300만원이 25.7%, 300~400만원이 29.4%, 400~500만원이 17.2%, 500만원 이상이 16.7%로 나타났다. 결혼기간은 7년 미만이 20.8%, 8~14년이 35.7%, 15~20년이 29.8%, 21년 이상이 13.7%로 나타났으며, 교제기간은 1년 미만이 20.8%, 1년이 38.6%, 2~3년이 25.9%, 3년 이상이 14.6%이었으며,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88.9%, 확대가족이 11.2%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부적응적 성격

부적응적 성격은 Hwang(1995)의 연구에서 산출된 성격장애 진단준거를 자기보고형 질문으로 변형시킨 Seo and Hwang(2006)의 '한국형 성격장애 진단검사'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DSM-IV에 기술된 10개의 성격장애를 진단하는데 필요한 주요 성격병리를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본 척도에서는 선행연구(Park, 2006; Jang, 2009; South et al., 2008)를 통해 부부적응에 영향으로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경계선적 성격, 의존적 성격, 자기애적 성격 3개 요인만을 추출하여 총 32문항으로 부적응적

성격을 측정하였으며, 12번 문항은 경계선적 성격과 자기애적 성격을 측정하는 중복 문항이다. Cronbach's α 의 신뢰도 계수는 경계선적 성격 .78, 의존적 성격 .72, 자기애적 성격 .70로 나타났다.

2) 갈등행동

갈등행동은 Gottman(1999)이 개발한 'Four Horsemen of the Apocalypse'를 번안·수정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이며, 총 33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중복된 문항과 예비조사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해 신뢰도가 낮게 나타난 6문항을 제외하고, 아내가 지각한 남편의 갈등행동 18문항, 아내 자신의 갈등행동 9문항을 사용하여 갈등행동을 측정하였다. Cronbach's α 의 신뢰도 계수는 남편의 갈등행동 .94, 아내의 갈등행동 .84로 나타났다.

3) 부부적응

부부적응은 Spanier(1976)의 'DAS(Dyadic Adjustment Scal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부부만족도, 부부일치도, 부부결합도, 애정표현 등 4개의 하위 척도로 되어있다. 문항 수는 총 32문항으로 부부만족도 10문항, 부부일치도 15문항, 부부결합도 5문항, 애정표현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2개 문항 중 27개의 문항은 6점 Likert 척도로, 2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1문항은 7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그리고 30번과 31번의 문항은 '있었다'에 0점, '없었다'에 1점을 주었다. Cronbach's α 의 신뢰도 계수는 부부만족도 .84, 부부일치도 .91, 부부결합도 .88, 애정표현 .78로 나타났다.

III. 연구결과

부부적응과 관련된 부적응적 성격과 갈등행동의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는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각 변인들의 유의한 상관계수는 .08에서 .86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계수인 VIF는 1.16에서 1.77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보이지 않아 각 변인들이 독립적인 개념의 특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상관관계의 방향은 예측된 방향으로 나타났다.

1. 기혼여성이 지각한 부적응적 성격과 갈등행동이 부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기혼여성이 지각한 부적응적 성격과 갈등행동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혼여성의 부적응적 성

애적 부적응 성격이 높을수록 기혼여성의 부부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Model 2에서는 추가된 R^2 가 .45($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경계선적 성격($\beta = -.15, p < .001$)과 자기애적 성격($\beta = .12, p < .001$)의 영향력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투입한 남편의 갈등행동($\beta = .30, p < .001$)과 아내의 갈등행동($\beta = .47, p < .001$)은 부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은 부부만족도를 약 62% 설명해주고 있다. 즉, 경계선적 부적응 성격이 낮을수록, 자기애적 부적응 성격이 높을수록, 아내가 남편과 자신의 파괴적 갈등행동을 낮게 지각할수록 아내의 부부만족도가 높음을 보여주었다.

부부만족도에 대한 각 변인의 변량을 살펴보면, 이는 각 변인들이 부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변인들 중에서 부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변인은 아내의 갈등행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2. 기혼여성이 지각한 부적응적 성격과 갈등행동이 부부일치도에 미치는 영향

부부일치도에 관련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Model 1에서 경계선적 성격($\beta = -.36, p < .001$), 의존적 성격($\beta = .11, p < .01$), 자기애적 성격($\beta = .30, p < .001$)이 부부일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모델은 부부일치도를 약 16% 설명해 주고 있다. 즉, 경계선적 부적응 성격과 의존적 부적응 성격이 낮을수록, 자기애적 부적응적 성격이 높을수록, 기혼여성의 부

부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2에서는 추가된 R^2 가 .26($p < .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경계선적 성격($\beta = -.14, p < .001$), 의존적 성격($\beta = .07, p < .05$), 자기애적 성격($\beta = .25, p < .001$)의 영향력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투입한 남편의 갈등행동($\beta = .42, p < .001$)과 아내의 갈등행동($\beta = .16, p < .001$)은 부부일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은 부부일치도를 약 43% 설명해주고 있다. 즉, 경계선적 부적응 성격과 의존적 부적응 성격이 낮을수록, 자기애적 부적응 성격이 높을수록, 아내가 남편과 자신의 파괴적 갈등행동을 낮게 지각할수록 아내가 부부일치도를 높게 지각하였다.

부부일치도에 대한 각 변인의 변량을 살펴보면, 이는 각 변인들이 부부일치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변인들 중에서 부부일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변인은 아내가 지각한 남편의 갈등행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3. 기혼여성이 지각한 부적응적 성격과 갈등행동이 부부결합도에 미치는 영향

부부결합도에 관련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Model 1에서 경계선적 성격($\beta = -.36, p < .001$)과 자기애적 성격($\beta = .27, p < .001$)이 부부결합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모델은 부부결합도를 약 13% 설명해 주고 있다. 즉, 경계선적 부적응 성격이 낮을수록, 자기애적 부적응적 성격이 높을수록, 기혼여성이 부부결합도를 높게 지각하였다.

Table 3. Effect of Married Women's Maladaptive Personality and Conflict Behavior on Dyadic Consensu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tandards β	
		Model 1	Model 2
Dyadic Consensus	Maladaptive Personality		
	Borderline Personality	-.36***	-.14***
	Dependent Personality	-.11**	-.07*
	Narcissistic Personality	.30***	.25***
	Conflict Behavior		
	Husband's Conflict Behavior		-.42***
	Wife's Conflict Behavior		-.16**
	ΔR^2		.26***
	R^2	.16	.43
	F	48.40***	108.94***

* $p < .05$, ** $p < .01$, *** $p < .001$

Table 4. Effects of Married Women’s Maladaptive Personality and Conflict Behavior on Dyadic Cohes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tandards β	
		Model 1	Model 2
Dyadic Cohesion	Maladaptive personality		
	Borderline Personality	-.36***	-.15***
	Dependent Personality	-.05	-.01
	Narcissistic Personality	.27***	.22***
	Conflict Behavior		
	Husband’s Conflict Behavior		-.32***
	Wife’s Conflict Behavior		-.23***
	ΔR^2		.23***
	R^2	.13	.36
	F	37.45***	83.65***

*** $p < .001$

Table 5. Effects of Married Women’s Maladaptive Personality and Conflict Behavior on Affectional Express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tandards β	
		Model 1	Model 2
Affectional Expression	Maladaptive Personality		
	Borderline Personality	-.13**	-.05
	Dependent Personality	-.06	-.03
	Narcissistic Personality	.02	-.01
	Conflict Behavior		
	Husband’s Conflict Behavior		-.02
	Wife’s Conflict Behavior		-.21**
	ΔR^2		.04***
	R^2	.02	.06
	F	6.37***	10.27***

** $p < .01$, *** $p < .001$

Model 2에서는 추가된 R^2 가 .23($p < .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경계선적 성격($\beta = -.15, p < .001$), 자기애적 성격($\beta = .22, p < .001$)의 영향력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투입한 남편의 갈등행동($\beta = .32, p < .001$)과 아내의 갈등행동($\beta = .23, p < .001$)은 부부결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은 부부결합도를 약 36% 설명해주고 있다. 즉, 경계선적 부적응 성격이 낮을수록, 자기애적 부적응 성격이 높을수록, 아내가 남편과 자신의 파괴적 갈등행동을 낮게 지각할수록 아내가 부부결합도를 높게 지각하였다.

부부결합도에 대한 각 변인의 변량을 살펴보면, 이는 각

변인들이 부부결합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변인들 중에서 부부결합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변인은 아내가 지각한 남편의 갈등행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4. 기혼여성이 지각한 부적응적 성격과 갈등행동이 애정표현에 미치는 영향

애정표현에 관련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Model 1에서 경계선적 성격($\beta = -.13, p < .01$)이 애정표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

으며, 이 모델은 애정표현을 약 2% 설명해 주고 있다. 즉, 경계선적 부적응 성격이 낮을수록, 기혼여성이 지각한 애정표현이 높게 나타났다.

Model 2에서는 추가된 R^2 가 .04($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Model 1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던 경계선적 성격이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애정표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추가로 투입한 갈등행동 중 아내의 갈등행동($\beta = .21, p < .01$)이 애정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은 애정표현을 약 6% 설명해주고 있다. 즉, 아내가 자신의 파괴적 갈등행동을 낮게 지각할수록 아내가 지각한 부부간의 애정표현이 높음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여성의 경계선적 부적응 성격이 낮을수록, 자기애적 부적응 성격이 높을수록, 남편과 자신의 갈등행동을 낮게 지각할수록 부부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혼여성의 경계선적 성격은 부부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의존적 성격은 부부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Bouchard et al., 2009; Jang, 2009)와 기혼여성의 자기애적 성격은 기혼여성의 자존감을 높게 하여 부부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Park, 2006; Sedikides et al., 2004)와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애적 성격이 부적응적 성격이라고 할지라도 부정적인 측면만 내재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적응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Zanden, 1997). 이는 상담현장에서 자기애적 성격의 내담자를 접근 할 때 부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부부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아내의 갈등행동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부간의 갈등상황에서 아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직면하는 행동은 부부만족도를 높이는 반면, 적대적이거나 비난 등의 부정적인 갈등행동은 아내의 부부만족도를 낮춘다고 밝힌 연구(Bae, 2000; Kim & Cho, 2000)와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생활에 불만족을 높게 지각하는 부부의 경우 아내가 남편에게 비난이나 질책, 혹은 무당한 요구 등의 부정적 갈등행동을 많이 보이는 특징이 있으며, 아내가 이러한 갈등행동을 보일 때 남편은 아내에게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Margolin, 1990) 결국 아내의 갈등행동이 자신의 부부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경계선적 부적응 성격과 의존적 부적응 성격이 낮을

수록, 자기애적 부적응 성격이 높을수록, 남편과 자신의 갈등행동을 낮게 지각할수록 기혼여성이 부부간에 일치도를 높게 지각하였다. 이는 결혼한 부부 82쌍을 대상으로 성격장애와 부부일치도를 연구한 결과에서 경계선 장애에 해당되는 경계선적 성격과 의존적 성격장애에 해당되는 의존적 성격이 부부일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난 South et al.(200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아내의 자기애적 성격은 아내의 부부일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남편의 자기애적 성격은 남편의 부부일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Park(2006)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는 경계선적 성격의 특성인 충동적이며, 대인관계가 불안정하고, 낮은 자존감의 특징과 의존적 성격의 복종적이고 상대방에게 매달리며 헤어짐을 두려워하는 특징으로 인해(Park et al., 2007) 결혼생활에서 의견과 가치관을 일치시키는 것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자기애적 성격의 경우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 자아팽창된 지각을 통해 높은 자존감을 보이며(APA, 1994),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아분화가 잘 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Park & Kho, 2005), 배우자와 의견을 나누고 일치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된다. 부부일치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기혼여성이 지각한 남편의 갈등행동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혼여성의 부부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신의 갈등행동보다 자신이 지각한 남편의 갈등행동이라고 밝힌 Yi and Park(2006)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갈등을 다루지 않고 회피하는 남편의 태도는 아내에게 영향을 미쳐 부부가 결혼생활에서 의견을 공유해야 하는 부분에 논의를 피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한 Chang(2001)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이 갈등을 다루지 않고 회피하는 태도를 취할 때 아내의 부부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아내 역시 문제에 관해 논의를 피하려는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Kim, 2009) 결국 부부간의 생각과 가치관을 일치시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경계선적 부적응 성격이 낮을수록, 자기애적 부적응 성격이 높을수록, 남편과 자신의 갈등행동을 낮게 지각할수록 기혼여성이 부부결합도를 높게 지각하였다. 이는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94)의 분류를 기준으로 성격장애를 군집 A, B, C로 나누어 부부적응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Gutman et al.(2006)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하는데, 경계선적 성격과 자기애적 성격이 포함된 군집 B는 부부결합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의존적 성격이 포함된 군집 C는 부부결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 준다. 이러한 결과는 경계선적 성격의 경우 부적응적 정서조절로 인하여(Bouchard et al., 2009; Zeigler-Hill & Abraham, 2006) 부부간의 유대

감과 부부공동의 활동참여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자기애적 성격의 경우 높은 자존감이 심리적 건강성을 높여 (Sedikides et al., 2004) 부부결합도를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부결합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혼여성이 지각한 남편의 갈등행동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기혼여성 자신이 지각한 성격이나 갈등행동 자체보다 남편의 성격이나 갈등행동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기혼여성의 부부적응과 이혼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밝힌 Kim and Kim(200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부부간의 갈등이 많을수록 부부결합도가 낮아진다는 연구(Kim & Cho, 2000; Kim & Kim, 2004)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지각한 사고나 행동보다 그것에 대한 상대방의 해석이나 평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Kim, 1992), 특히 부부관계에서 남편의 갈등행동은 갈등행동 그 자체보다도 아내가 남편의 갈등행동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따라 아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Chang et al., 2003; Karney & Bradbury, 1995), 기혼여성이 지각한 남편의 갈등행동은 기혼여성의 부부결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담현장에서는 부부간의 갈등상황에서 남편의 부정적 갈등행동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방안 탐색과 더불어 상담을 진행할 때 개인이 그 상황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기혼여성의 부적응적 성격은 애정표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신의 갈등행동을 낮게 지각할수록 기혼여성이 애정표현을 높게 지각하였다. 이는 갈등상황에서 아내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 표현을 능숙하게 전달하는 친숙형의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억제하거나 차단하는 파괴적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에 비해 자신의 성적 만족도를 높게 지각한다는 Kim(2000)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아내가 결혼생활에서 경험하는 갈등을 남편보다 더 민감하게 지각하기 때문에(Choi & Noh, 1994), 아내가 지각한 부부간의 애정표현은 남편의 갈등행동 보다 아내 자신의 갈등행동에 더 큰 영향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부적응적 성격은 애정표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계선적 성격장애의 기혼여성은 배우자와의 성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성적 태도에 있어 양가감정을 겪는다는 Bouchard et al.(2009)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성격을 지각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이기 때문에(Zanden, 1997), 기혼여성이 부적응적 성격을 갖고 있어도 자신의 성격을 지각하는 방식에 따라 애정표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적응적 성격의 정도가 병리적인 수준인지 일반적인 수준인지에 따라 애정표현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결과는 기혼여성의 부부일치도와 부부결합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신이 지각한 남편의 갈등행동으로 나타났고, 기혼여성의 부부만족도와 애정표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신의 갈등행동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가 갈등상황에서 보이는 비난, 경멸, 방어, 회피 등의 파괴적 갈등행동이 부적응적 성격보다 부부적응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재 이혼의 사유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성격차이는 실제 성격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의견을 조율 할 수 없거나, 서로 조화롭고 적응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을 내포하고 있으며, 성격차이의 근원에는 부부간의 파괴적 갈등행동이 내재된 것으로 추론된다. 이에 따라 부부 교육프로그램이나 상담현장에서 부부간의 갈등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부적응적 성격인 경계선적 성격, 의존적 성격, 자기애적 성격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기혼여성이 지각한 경계선적 성격은 부부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기애적 성격은 부부적응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계선적 성격의 충동적이고 불안정한 감정 상태와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 왜곡하여 지각하는 특징이 부부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괄목할 만한 결과는 자기애적 성격이 부부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인데, 이러한 결과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높은 자존감이 부부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지만 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기혼여성의 부적응적 성격과 부부간의 갈등행동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나 애정표현의 설명력이 미비하게 나타나 본 연구는 부적응적 성격과 애정표현의 관련성을 살펴 볼 필요성을 제기해 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부적응적 성격 유형에 따라 부부적응의 하위 영역을 설명하는데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부적응적 성격유형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이 증명되었고, 부적응적 성격유형과 부부적응을 관련지어 살펴본 것에 의의를 주었다. 또한 부부간의 갈등행동은 부적응적 성격보다 부부적응을 더욱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이혼의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혔던 성격차이와 같은 모호한 개념이 아닌 부부가 노력해서 해결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념에 대한 발견으로 실제 부부 상담 현장의 상담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부여해 준다.

REFERENCE

- 권석만 & 한수정(2000). *자기애성 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 김시업(2006). *결혼과 가정*. 서울, 학지사.
- 김양희(1993). 한국가족연구회: 가족학. 서울, 하우.
- 김태현 · 이성희(1999). *결혼과 사회*.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사.
- 민병배 · 남기숙(2000). *의존성성격장애와 회피성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 이정덕(1998). *결혼과 가족의 이해*. 서울, 학지사.
- Bae M. J.(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Coping Behavior, Forgiveness and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 thesis, Jeonju University, Jeonju.
- Chang C. M.(2001). The Mediating Effects of Marital Support and Conflict Resolution Behavi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14(1)*, 153-171.
- Chang M. S. & Kim Y. H.(2003).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ed Woman's Depression.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2)*, 399-414.
- Cho S. H. & Chung H. J.(2008). The Effects of Family of Origin Experiences and Self-Differentiation on Marital Relationship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in the Nuclear Family among Married Men and Women.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17(5)*, 873-889.
- Choi H. K. & Noh C. Y.(1994). The Types of Marital Problem Solving Behaviors Among Korean Married Men and Wom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2(2)*, 262-272.
- Chung E. H.(2004). *The Study of Martial Stability through Family-of-Origin Differentiation, Self-Esteem, and Conflict-Coping Behaviors of Couples*. Unpublished master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Hwang S. T.(1995). Development of diagnostic criteria for personality disorder.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225-271*.
- Jang J. Y.(2009).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sona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in married couples*. Unpublished master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 Kim E. J.(1992). *Relationship between Role Conflict and Way of the Conflict Resolution in the Early years of Marital Life*. Unpublished master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H. J. & Youn C. H.(199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Satisfaction & Efficiency of the Intersperse Communication over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9(2)*, 155-170.
- Kim H. J. & Kim M. C.(1999).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Health in Family-of-Origin, Self-Esteem and Marital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relations, 4(2)*, 39-60.
- Kim J. S.(2009). *The influence of self differentiation on marital satisfac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conflict coping behavior, communication patter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pousal support*. Unpublished master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 Kim K. M. & Kim Y. H.(2009). Interaction of Couple's Personality Dimensions & Conflict Related to Marital Satisfaction and Divorce Intentio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4(3)*, 327-352.
- Kim K. S. & Cho Y. R.(2000). The Conflict - Coping Behaviors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5(2)*, 1-21.
- Kim S. Y. & Kim Y. H.(2004). Couple Relationship and Personality Factors Predicting Marital Satisfaction and Divorce Intention over Tim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9)*, 41-57.
- Kim Y. H. & Chung S. Y.(2007). The Interaction Effects of Marital Conflict and Conflict Expression Styles on Marital Satisfaction & Stability.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5(5)*, 65-82.
- Kim Y. H.(1999).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7(6)*, 77-95.
- Kim Y. W.(2000). *A Study on the relation among the marital communication style, the level of sexual knowledge, and the sexual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Kwon J. H. & Lim S. R.(1998). The Effect of Depressive Symptoms on Marital Communication.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7(2)*, 17-31.
- Kwon O. S.(1996). *Analysis on the married couple's conflict and conflict management*. Unpublished master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Lee G. H. & Ok S. H.(1998). Marriage types classified

- by wives' perception of marital conflict and intimac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6(4), 247-248.
- Lee J. R.(2009). *Effects of Family-of-origin Differentiation, Anxiety & Sense of Well-being on Marita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 Lee J. E. & Lee Y. H.(2000). The Relation between Assertiveness, Aggressiveness, Daily Hassles, Marital Communic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3), 531-548.
- Lee S. S.(2000).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ed Adults level of self Differentiation and Their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5(1), 23-43.
- Park J. M. & Seo S. G. & Lee H. J.(2007). Emotion Dysregulation in Young Adult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6(3), 717-730.
- Park J. Y.(2006). *Effects of Narcissism, Other-oriented Perfectionism, and Aggression on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Park Y. H. & Ko J. H.(2005). The Effects of Self and Spouse's Self-esteem, Communication Pattern, and Conflict Coping Behaviors on Marital Satisfaction.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9(1), 65-83.
- Seo J. S. & Hwang S. T.(200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Personality Disorders Test.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5(1), 273-288.
- Statistics Korea. www.kostat.go.kr
- Yi Y. S. & Park K. R.(2006). Wives' and Husbands' Conflict Coping Styles and Marital Adaptation.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15(3).
- Youn G. J. & Lee G. S. & Kim E. Y.(2001). *Adult Development And Aging*. Seoul: Gyomunsa(395p).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4th Ed.). Washington: Author.
- Bauserman, S. A. K., Arias, I. & Craighead, W. E.(1995). Marital attributions in spouses of depressed patient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17, 231-249.
- Beach, S. R. H. & O'Leary, K. D.(1993). Dysphoria and marital discord: Are dysphoric individuals at risk for marital maladjustment?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9, 355-368.
- Bouchard, S. & Sabourin, S., & Lussier, Y., & Ville-neuve, E.(2009). Relationship quality and stability in couples when one partner suffers from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5(4), 446-455.
- Bouchard, S., & Godbout, N., & Sabourin, S.(2009). Sexual attitudes and activities in women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involved in romantic relationship.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35(2), 106-121.
- Caughlin, J. P., Huston, T. L., & Houts, R. M.(2000). How does personality matter in marriage? An examination of trait anxiety, interpersonal negativity,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326-226.
- Coyneet, J. C., Thompson, R., & Palmer, S. C.(2002). Marital quality, coping with conflict, marital complaints, and affection in couples with a depressed wif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6, 26-37.
- Daley, S., Burge, D., & Hammen, C.(2000).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symptoms as predictors of 4-year romantic relationship dysfunction in young women: Addressing issues of specifici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 451-460.
- Gottman, J. M.(1999). *The marriage clinic: A scientifically-based marital therapy*. N.Y.: W. W. Norton.
- Gottman, J. M., Coan, J. A., Carrere, S., & Swanson, C.(1998). Predicting marital happiness and stability from newlywed inter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1), 5-22.
- Gutman, J., McDermut, W., & Miller, I., & Chelminski, I., Zimmerman, M.(2006). Personality pathology and its relation to couple functioni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2(10), 1275-1289.
- Karney, B. R., & Bradbury, T. N.(1995). The longitudinal course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A review of theory, method,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18(1), 3-34.
- Margolin, G.(1990). Marital Conflict. In G. H. Brody, & I. E. Sigel(Eds). *Methods of family research: Biographies on research projects. Clinical populations(pp. 191-225)*. Hillsdale, NJ: LEA.

- McGlashan, T. N., Grilo, C. M., Sanislow, C. A., Ralevski, E., Morey, L. C., & Gunderson, J. G.(2005). Two-year prevalence and stability of individual DSM-IV criteria for schizotypal, borderline, avoidant, and obsessive-compulsive personality disorders: Toward a hybrid model of Axis II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2, 883-889.
- Robins, W. R., Caspi, A., & Moffitt, T. E.(2000). Two personalities, one relationship: Both partners' personality trait shape the quality of their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251-259.
- Sedikides, C., Rudish, E. A., Gregg, A. P., Kumashiro, M., & Rusbult, C.(2004). Are normal narcissists psychologically healthy?: Self-esteem matt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 400-416.
- South, S.C., & Turkheimer, E., & Oltmanns, T. F.(2008). Personality disorder symptoms and marital functioning.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6(5), 769-780.
- Spanier, G. B.(1976). Measuring dynamic adjustment: New scale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Journal of Sociology of the Family*, 38, 15-28.
- Wells, J.(1984). *Choices in marriage & family*. Jackson: Piedmont Press.
- Whisman, M. A., Schonbrun, L. M.(2009). Psychopathology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importance of evaluating both partn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Psychology*, 72, 830-838.
- World Health Organization. www.who.or.id.
- Zanden, J. W. V.(1997). *Human development*, (6th Ed.). N.Y.: The McGraw-Hill Companies.
- Zeigler-Hill, V., & Abraham, J.(2006). Borderline personality features: Instability of self-esteem and affect. *Journal on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5(6), 668-687.

접수일 : 2011년 11월 15일

심사일 : 2011년 12월 13일

게재확정일 : 2012년 02월 03일